

국내경기는 생산활동의 감퇴가 계속돼

~ 급격한 경제수축에는 제동도, 세계경제의 행방이 우려 요소 ~

(조사대상 2만 3,675사, 유효회답 1만 1,979사, 회답율 50.6%, 조사개시 2002년 5월)

조사결과의 포인트

- 2020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25.2로 8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국내경기는 급격한 수축에 제동이 걸렸으나 생산활동의 감퇴는 계속되었다. 향후는 국내외의 우려요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후퇴경향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으로 보인다.
- 10개 업계 중 『제조』 『도매』 등 5개 업계가 악화, 『부동산』 『서비스』 등 5개 업계가 개선되었다. 『제조』는 조사개시 이후 처음으로 1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51개 업종별로는 「광고관련」 등 7개 업종이 과거최저를 기록하였다.
- 4월 7일 시작된 긴급사태선언이 일부 지역에서는 5월 25일까지 계속되었다. 이러한 가운데 10개 지역 중 9개 지역 31개 도도현(都道県)이 악화되고 『호쿠리쿠』가 개선되었다. 외출자제 및 휴업요청 등으로 인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다. 「대기업」 「중소기업」 「소규모기업」은 8개월 연속 모두 악화되었다.

< 2020년 5월의 동향 : 후퇴국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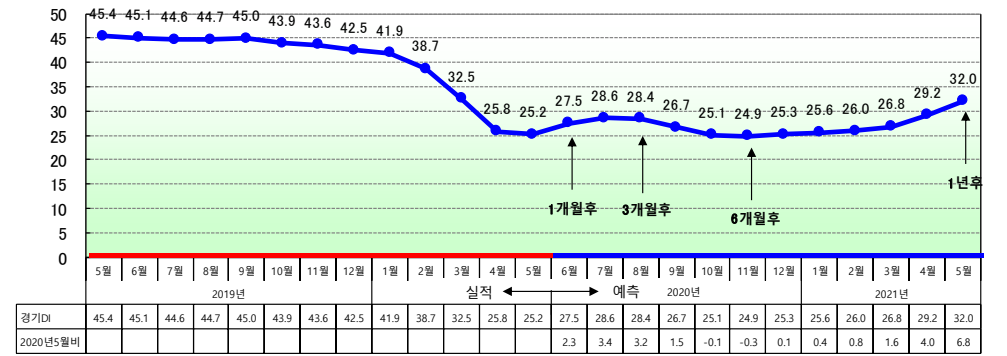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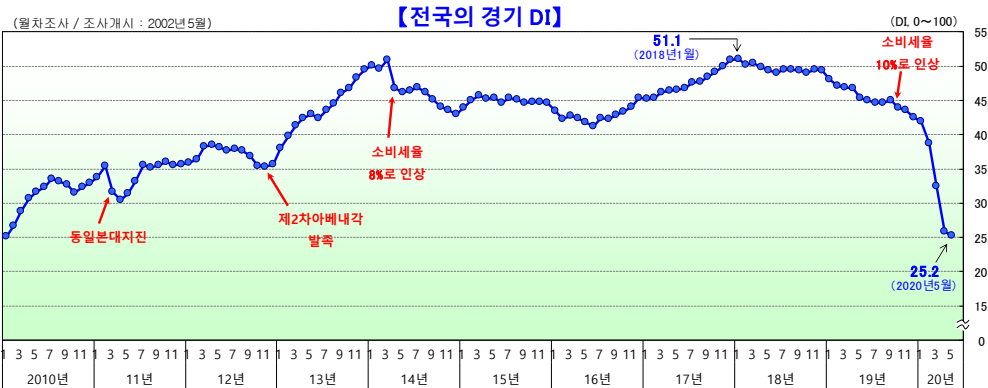
2020년 5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.6포인트 감소한 25.2로 8개월 연속 악화되었다. 5월의 국내경기는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(COVID-19)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표한 긴급사태선언이 25일까지 계속되어 큰 폭으로 제약된 경제활동이 계속되었다. 생산조정 및 임시휴일 등이 실시되어 생산·출하량 DI가 과거최저의 수준까지 침체한 한편, 기업의 인력부족은 급격하게 감퇴하였다. 한편 긴급사태선언의 해제를 앞둔 5월 중순경부터 기업의 체감경기는 서서히 상향되기 시작하였다. 외출자제로 인한 자택 내 소비 증가 및 재택근무, 영상통화의 확대 외에, 위생상품 및 핸드메이드 상품 등은 호재였다.

국내경기는 급격한 수축에 제동이 걸렸으나 생산활동의 감퇴는 계속되었다.

< 향후의 전망 : 일시적인 하락세 정지 >

향후의 국내경기는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어 경제활동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. 생산조정 및 임시휴일 등으로 인한 침체로부터 생산의 만회 기대되는 한편, 외출자제 및 휴업으로 창출된 신규수요에 대한 상품·서비스도 호재가 될 것이다. 더욱이 긴급경제대책 및 금융완화정책의 강화와 함께, 방일(訪日)관광소비의 재개 등도 하락 방지의 요인이 될 것이다. 한편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제2차·제3차 대확산의 가능성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. 기업의 매출이 격감한 가운데, 기업업적 악화에 따른 고용·소득환경의 악화가 우려요소로 작용할 것이다. 또한 세계경제는 대폭 침체가 예상되어 경기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.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생활양식 및 가치관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것이다.

향후는 국내외의 우려요소가 나타나는 가운데 후퇴경향이 일시적으로 멈출 것으로 보인다.



※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